

## M-1

# 정관절제술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환자에서 시행된 정관정관문합술의 수술성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박달우 · 박재영 · 임대정 · 김수웅 · 백재승

**목 적:** 정관절제술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관정관문합술의 수술성적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 10년간 정관절제술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정관복원술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추적이 가능하였던 3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정관복원 재수술을 시행받는 환자들에서 술중 정관액의 정자 검출 유무와 관계없이 이층 정관정관문합술을 시행하여 높은 개통률과 임신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술중 정관액의 정자 검출 유무에 관계없이 이층 미세 정관정관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1~3개월 간격으로 정액검사를 시행하여 개통 여부를 확인하였고 매 방문시 임신 여부를 조사하였다. 외래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화와 우편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병력지를 통하여 수술 당시 환자와 배우자의 나이, 정관액의 정자 출현 유무 (적어도 일측에서 확인 vs 양측에서 확인 안됨), 정관액의 성상 (watery or milky vs creamy) 등을 조사하였고 각 인자들이 수술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수술 당시 환자와 배우자의 평균 나이는 각각 47.8세 (35~69), 38.5세 (27~51)였으며, 정관절제술 후 정관복원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8년 (15~27년)이었고, 재혼이 가장 흔한 (68.4%) 수술의 동기였다. 술중 양측 정관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23례 (60.5%)였다. 일측 정관정관문합술을 시행한 1례를 제외한 전례에서 양측 정관정관문합술이 시행되었다. 술후 정액검사서 정자가 출현한 경우는 28례로 73.7%의 개통률을 보였다 (평균 정자농도;  $38.7 \times 10^6/\text{ml}$ , 운동성; 39.7%). 술중 적어도 일측의 정관액에서 정자가 검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개통률은 각각 86.7% (13/15), 65.2% (15/23)로 정자가 검출된 경우에 개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p=0.259$ ). 환자의 나이, 정관 폐색의 기간 등은 개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정관액의 성상이 watery or milky 군과 creamy 군에서의 개통률이 각각 93.3%, 60.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0.049$ ). 임신율은 1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중 자연임신이 된 경우는 9례 (30%). 출산에 성공한 경우는 7례 (23.3%)였다. 술후 개통에 성공하였고 임신 여부가 확인된 21례의 대상군만을 따로 분석해 보았을 때, 임신 성공군과 실패군의 배우자 평균 나이는 각각 35.1세, 40.7세였고 배우자의 나이를 37세로 ( $\leq 37$ ,  $> 37$ ) 분류하였을 때, 임신율은 각각 70%와 1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0.03$ ). 그의 다른 인자들은 임신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 론:** 정관폐색의 기간이 15년 이상 경과된 환자들에서 시행된 정관정관문합술은 일반적 정관정관문합술의 성적보다 낮은 개통률과 임신율을 보였다. 술중 정관액의 watery or milky 군에서 개통률이 높았고 술후 개통에 성공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이가 37세 이하인 군에서 임신율이 높았다. 술중 양측 정관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35%는 술후 개통에 실패하여 이차적 부고환폐쇄가 의심되었으나 이들 환자들에서 부고환정관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치료방침인가에 대한 결론은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